

새터민의 내일을 향한 삶의 체험 - Parse의 인간되어감 연구방법론 적용 -

이 옥 자¹⁾ · 김 현 경²⁾

1) 건양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2)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BK21 연구원

Lived Experience of Considering Tomorrow among North Korean Refugees

Lee, Ok Ja¹⁾ · Kim, Hyun Kyoung²⁾

1) Associate Professor, Nursing of Science, Konyang University

2) BK 21 Researcher, Social Work, Hallym University

Abstract

Purpose: The present study was done to discover the structure of universal actual experiences 'Considering tomorrow' of health and quality of life among North Korean refugees in terms of the socio-cultural context of South Korea. **Method:** The research question was 'what is the structure of the actual experience of 'Considering tomorrow?', which was examined based on the Parse's human becoming research method. Five North Korean adult refugees were recruited from a National Reconciliation Committee in Seoul/Incheon. The data was gathered from dialogues and collected from February, 2006 to November, 2006. **Results:** The structures found in this study were: 'hope for future life by taking responsibility and having harmony with South Koreans, by forming an integrated identification; having a chance for positive engagement, by attaining

human freedom and hope; feeling respected, by assimilating self to the new world; getting freedom back, by facing a new challenge and preparing self for a new social role; overcoming cultural differences with fortified hardiness for survival, by making a decision for a life course with individual growth. In addition, conceptual integration was that 'Considering tomorrow is transforming the enabling-limiting values'. **Conclusion:** Health professionals need to know North Korean refugees' psychological difficulties, expectations of treatment, help seeking behavior, and expectations from mainstream culture. Additionally, understanding North Korean refugees' needs for reality, health education and a multi-disciplinary team approach are necessary to improve their health.

Key words : Refugees, Culture, Human becoming, Phenomenological study

주요어 : 새터민, 내일을 향한 삶의 체험, 인간되어감 이론, 파시의 연구방법론

투고일: 2007년 9월 3일 심사완료일: 2007년 10월 2일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Lee, Ok Ja

Nursing of Science, Konyang University

685, Gasoowon-dong, Seo-gu, Daejeon, Korea

Tel: 82-42-600-6341 Fax: 82-42-543-3632 E-mail: ojlee@konyang.ac.kr

서론

연구의 필요성

간호사는 개인의 자율성의 옹호자이며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행동한다. 간호사는 간호 업무를 수행할 때에 인간의 존엄성을 인식하고 인간에 대한 경애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사회 정의적 간호 철학이 요구된다(Kim, Kim, Lee, & Ko, 1991). 간호 학문은 간호의 사회적 역할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인간의 이해에 바탕을 둔 인간에의 실천 학문이어야 한다(Lee, 1995). 인간이 건강하다는 것은 ‘인간 되어감(human becoming)’ 과정의 경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체험이다(Parse, 1991). 인간은 끊임없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자유로이 경험을 선택하고 책임을 지는 존재이다(Lee, 1995).

2007년 2월을 기준으로 남한에 입국한 새터민¹⁾은 1만 명을 넘어섰다(Koreapeace Forum, 2007). 2002년부터 매해 일 천명 이상의 새터민이 남한에 입국함으로써 숫자적 측면에서도 이들은 남한사회의 주요 구성원이 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새터민이 새로운 이주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 및 민간차원의 지원 및 노력은 중요한 일이 되었다. 그러나 새터민들은 경제적 어려움 뿐 만 아니라 심리적 어려움, 의식구조의 차이에 따른 어려움, 남한사회에 대한 지식 및 이해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사회연계체계의 빈약으로 인한 어려움 등을 호소하고 있다(Kim, 2007; Jeon, 2000). 이들은 3개월간의 하나원 교육을 마치고 남한사회로 편입되면 개개인의 다양한 가치관과 능력에 따라 서로 다른 경험을 하면서 적응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인간은 성장 능력을 지닌 개방 체계이기에 고정된 모습의 인간(being)이 아니고 생명을 소유한 시간에서부터 끝나는 순간까지 스스로를 형성해 가는 역동적인 모습의 인간 되어감(becoming)의 존재인 것이다(Kim, 1979).

새터민의 인간되어감에 따른 생존과 적응, 사회통합 문제에 대한 이해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고려된다. 즉, 개인이 가진 독특한 성격적 요인과 그에 따른 취약성 및 북한이라는 특수한 사회에서 양육되고 교육되면서 만들어진 인지적 특성요소, 북한에서의 갈등 등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탈북을 결심하는 과정, 가족들이나 주변인과의 협의 과정에서의 갈등, 국경을 넘는 일, 중국에서 살아남기 위해 겪게 되는 극단적 위험들과 삶의 어려움들, 남한에 들어오는 과정, 남한에 들어와서 받는 조사, 직장을 잡거나 학교를 다니면서 겪는 다양한 경험 등에 대한 폭넓은 이해 또한 병행되어야 한다

(MSF & IBS, 2006). 이에 새터민의 심리적·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는 내적으로는 자신의 노력과 행동 변화와 외적으로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종합복지관, NGO 등의 도움과 같은 외적 자원을 통해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Jeon, Yoon, & Um, 2003). 최근 새터민 연구에는 이들이 과거 고통경험을 심리적 성장에너지로 전환시킨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밝히고 있는 질적 연구가 있으며(Kim, 2007), 우울예측 3년 추적 연구에서는 새터민이 과거 북한에서 외상(trauma)경험이 많을수록 우울 수준이 오히려 낮게 밝혀졌다는 양적 연구도 있다(Jung, Jeon, & Jung, 2006). 물론 양적 연구의 한계로 심리적 안녕(well-being)과 우울수준 감소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파악하지 못한 연구한계는 있으나, 새터민들의 남한에서의 건강한 생활을 발견한 연구라는 측면에서 중요성이 제시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새터민의 이러한 긍정성을 강조한 연구는 극히 제한적일 뿐 아니라, 간호학에서 새터민의 건강한 삶을 조명한 연구는 전무하다. 현실적으로 새터민 자신의 건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우울, 불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신체화 장애,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정보를 강좌나 문서화된 자료 및 시청각 자료로 소개하는 등 건강에 보다 초점이 맞추어진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새터민은 이주사회에서 경제적 문제, 취업 및 진로, 지역사회정보 부재, 가족문제 등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동시에 갖고 건강 전문가를 찾게 됨으로 이들에 대한 건강 지원 영역과 개입형태는 간호학, 의학, 사회복지학, 및 심리학 등의 정신보건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훈련을 받은 타 영역의 전문가들과 연계된 다학제적 팀 접근이 필요하다는 연구가 제시되고 있다(Cho & Yu,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arse의 인간되어감 방법론을 적용하여 남한이라는 새로운 이주사회의 사회문화적 맥락과 맞물려 경험되어진 새터민의 내일을 향한 삶의 체험 연구를 통해 이들이 과거와 지금-여기에서의 경험을 어떻게 미래로 통합시키는지 그 체험에 관한 구조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는 새터민의 현상적 체험을 이해하여 새터민의 건강을 위한 간호중재 이론을 개발하고자 함이다. Watson은 간호학의 지식 체계는 경험론(과학) 뿐만 아니라 미학, 인본주의, 예술, 형이상학을 포함하는 인식론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고 하였다(Caper, 1978). 현상학적 연구 방법은 대상자의 체험 구술을 분석하여 체험 현상의 의미를 밝힘으로써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다. 일상의 삶을 연구하기 위한 철학이며 이론인 현상학은 인간 존재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체험의 의미와 지각된 구조를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준다. 따라서 현상학적 연구 방법은 간호 실무와 관련된 연구에 적합한 질적 연구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Lee, 1995)

1) 법률상 용어인 북한이탈주민을 2004년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선정된 대체 용어이다.

연구의 목적

- 새터민의 내일을 향해 사는 삶의 체험의 구조를 발견한다.
- 새터민의 내일을 향해 사는 삶의 구조를 발견하여 새터민의 체험을 이해하므로 새터민의 적응을 위한 간호중재 이론을 개발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Parse 연구방법론의 기본 가정(Ko, Lee, & Lee, 1998)은 아래와 같다.

- 인간은 우주와 상호관계 하는 개방적 존재이다. 인간되어감의 구조는 ‘인간-우주-건강’ 과정과 관계가 있다.
- 인간되어감은 개인에 따라 독특하다. 인간은 타인과 우주와의 관계에서 반사적-전(前) 반사적(reflective-prereflective)인 선택을 하면서 자신의 건강을 구체화한다.
- 체험에 관하여 서술함으로써 인간 되어감에 대한 지식은 향상된다. 개인이나 가족은 건강의 의미를 재 조명해보면서 그들 나름대로의 경험을 설명할 수 있다.
- 연구자와 참여자가 진정으로 함께 하는 너와 나의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인간적으로 경험한 현상의 의미가 드러나고 연구자는 체험에 관한 확실한 정보를 얻는다.
- 논리성을 가지고 함께 창조하고, 연구자는 추출-종합과정, 그리고 발견적 해석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의미를 찾아내고 의미의 논리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면서 체험의 구조를 만든다. 간호지식의 기초가 향상되는 방식으로 이론에 따라 체험구조를 드러낸다. 현상학적-해석학적인 Parse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의 대상은 희망, 기쁨-슬픔, 제한받는 느낌-자유로운 느낌, 만족, 애통, 고통 등과 같은 건강과 관련된 보편적인 체험들이다. 연구되는 체험의 의미는 어휘(word), 상징, 음악, 은유, 시, 사진, 그림 혹은 활동을 통하여 기술될 수 있다.

● 나와 너의 관계형성(dialogical engagement)

면담의 과정이 아니라 연구자와 참여자가 진정으로 함께 하면서 경험에 대해 비구조적인 대화를 나누는 과정이다. 연구자는 참여자의 경험이 어떻게 회상되는지, 현재의 경험은 어떠한지, 또 그 경험으로 인한 미래는 어떠한지 등에 대해 그 내용이 나타나도록 대화를 한다. 연구자는 참여자들과 대화에 들어가기 전에는 구심적 역할을 하며, 참여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한 후에는,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와 같이 반응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충분히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자신을 개방시키도록 노력한다. 연구자는 각 참여자가 자신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할 때, 참여자

의 경험을 해석하려 하지 않고 각 참여자들의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가면서, 참여자들과 ‘진정으로 함께 하는’ 자세를 유지한다.

● 추출-종합(extraction-synthesis)

참여자의 언어로부터 과학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체험의 구조형태에 대한 개념적인 본질을 선별하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하여 확인된 구조(과거, 현재의 순간, 아직 나타나지 않은 미래의 모든 것을 동시에 재 체험하는 역설적인 삶)가 연구문제에 대한 대답이 된다. 이 과정은 아래와 같다.

- 참여자의 언어를 적은 기록에서 그 경험의 주요내용(essence)을 추출한다.
- 추출된 주요내용을 연구자의 언어로 종합한다.
- 각 참여자의 서술에서 언어-예술(Language-Arts)을 만든다.
- 만들어진 언어-예술에서 핵심개념(core concept)을 다시 뽑아낸다. 구조는 언어-예술의 중심의미를 나타내는 관념이다.
- 추출된 구조를 생생한 경험의 구조로 종합한다.

● 발견적 해석(heuristic interpretation)

체험의 구조를 이론과 연결시키는 작업이며, 논리적이고 추상성이 높은 창조적인 마지막 과정이다. 이 과정은 구조적 통합과 개념적 해석과정을 거친다. 구조적 통합과정에서는 형성된 구조를 인간되어감 이론의 구조로 통합하고, 개념적 해석과정에서는 인간되어감 이론의 개념을 사용하여 체험의 구조를 구체화한다. 체험의 구조는 과거, 현재, 미래를 합한 역설적인 삶이다. 구조를 이론에 연결시키는 것은 경험적인 것을 이론적인 것에 연결하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 선정

본 연구의 참여자는 유의적 표집방법인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을 적용하였다. 연구자는 참여자와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해 가톨릭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와 프란치스코 수도회에서 주관하는 ‘청년 하이모’에서 2006년 2월부터 새터민 청년들을 중심으로 약 6개월 간 격주로 영어를 가르쳤다. 또한 다양한 표집을 위해 인천교구 민족화해 위원회의 협조를 얻어 월 1회 열리는 ‘새터민 모임’에 참여하면서 이들과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의 연령대는 2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까지 남녀 성인 새터민을 중심으로 5명을 최종 선택하였다. 이들은 전기기술학교, 의과대학 및 일반 대학에 다니고 있었으며, 남한 정착 시기는 최소 1년 4개월부터 6년 정도이다. 본 연구의 윤리적 고려로서 연구자는 참여자와 연구를 위한 대화(dialogical engagement)를 시작하기 전에 전화 또는 구두로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물었다. 또한 연구자가 소속된 학교, 연락처, 연구 목적과 방법, 과정에서도 대답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응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와 자발적으로 언제든지 대화(dialogical engagement)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익명처리를 통한 비밀유지와 녹음된 인터뷰 내용은 학문적 용도로만 활용하고 지을 것이라는 내용을 문서화하여 연구 참여자에게 동의를 얻었다.

자료 수집

자료수집 기간은 2006년 2월부터 11월까지이며, Parse의 연구방법론에 따라 dialogical engagement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연구 질문은 ‘내일을 향해 사는 체험이란 어떠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라는 개방형 질문으로 시작하였다. 면담장소는 대학의 빈 교실, 공원벤치, 연구자 및 참여자 주택, 조용한 카페 등에서 이루어졌다. 면담은 2-3회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각 면담 시간은 1시간 30분-2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면담 내용은 참여자의 사전 동의를 통해 녹음 되었으며, 녹취 내용은 본 연구자가 당시의 언어, 비언어적 메시지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여러 번 반복 청취 하면서 워드프로 세스에 직접 필사(transcript) 하였다.

참여자 1의 구술내용과 추출내용

참여자1의 구술내용	참여자 언어의 추출내용
3살 때 어머니가 먹고 살기 힘들다고 날 양자를 보냈어요. 양어머니가 너무 때려서 6살 때 집 나와 꽃제비로 살았어. 길에서 거칠게 쫓겨. 싸움질도 많이 하고...여기서 달이 밝을 때면 슬픔이 올라와요. 고향 생각나고. 쌓여서 속이 터지니까 비워야 해요. 슬픔이 쌓이면 비우고...또 쌓이면 비우고...그렇게 살았어요. 한국은 노력의 대가가 명백해. 일하면 일 한 만큼 대가가 나와서 의욕이나...나도 이 사회에 한 부족품이라 생각되거든요..	어린 시절 먹고 살기 힘들어 꽃제비로 살았지만 고향생각으로 슬픔을 비우며 지냄. 한국은 일한 대가가 명백해 의욕이 나며, 나도 사회의 한 부족품이라 생각됨.
하나원서 나와 외로우니까 새터민 친구한테 전화해서 풀고...넘어 온 일행 중에 젊은 북한 여자가 있어 결혼하자고 쫓아다녔어. 곧 애기 아빠가 된단니까 자랑스러워요. 애 고생 안시키고 키워야지 하는 생각이 들어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 나가요. 자식이 생긴단니까 미래를 보게 되요. 아내한테 ‘너 하고 애가 있어서 너무 고맙다고’했는데 가족이 생기니까 열심히 살아야겠다...책임감이 강해져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잘 하면서...특히 남한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한국 생활 해 보니까...대인관계가 중요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새터민 친구들과 외로움을 풀고, 결혼하고 아빠가 되니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강해짐. 남한사람과 잘 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대인관계가 중요함을 깨달음
간신히 두만강 넘어 중국 갔을 땐 한국 올 생각은 없었어요. 중국 간 목적이 밥만 먹으면 된다 그 생각 하나였으니까..숨어 살아야 되니까...그 상황에 있으면 숨이 조여. 잡히면 그대로 복송이거든. 중국서 브로커가 북한사람 10명 모아 한국가려고 중국국경을 넘었는데..미얀마에서 잡혀서 3개월 간 난민수용소에 있었어. 나침반 갖고 미얀마 산을 넘어 가는데, 열대 숲이라 걸어가는 게 정말 고난의 길이야. 숲이 더워서 숨이 탁탁 막히고, 무성한 풀이 뺨뺨해. 아침에는 이슬이 소나기처럼 똑똑 떨어져. 그거 헤쳐 나가는데 쉽지 않아. 날씨는 낮에는 엄청 더운데 밤에는 부들부들 떨면서 자야 돼. 한명이 아파서 교회가 보이길래 한국 사람이라고 거짓말하고 들어가...집 주인이 신고해서 현지 군인들이 우리 모두 붙잡아 갔어. 그때 이젠 정말 끝이구나 했는데 살면서 기적이 있다는 걸 믿게 됐어. 미얀마 난민수용소에서 나온 날이 바로 노화의 방주에서 물이 빠진 날이래. 여기 온 것 자체가 기적인 거지...여기서는 자기 눈높이를 맞춰야 해요. 나한테 맞는 자리가 뭔지 빨리 파악해야 해. 지금 전기기술 배우느라 기술대학에 다니거든요. 곧 자격증이 나올 거니까 사는데 희망이 생겨...	한국 갈 생각은 없었으나 중국서 복송되지 않으려고 미얀마 산을 넘었으나 군인들에게 잡혀 난민수용소생활을 함. 기적적으로 한국에 들어와 기능대학에 진학하여 자격증이 나올 거니 희망이 생김

자료 분석

본 연구는 새터민의 내일을 향해 사는 체험의 구조를 발견하고자 인간의 체험을 이해하는데 가장 적절한 현상학적이고 해석학적인 Parse의 연구방법론(Parse, 1991, 1998, 2001, 2005, 2006)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자는 참여자의 구술내용에서 의미 있는 내용을 추출하고 이를 연구자의 언어로 종합하여 핵심 언어-예술을 도출한 후에 그 구조를 확인하고 서술적으로 표현하여 구조적으로 통합하면서 발견적 해석과정을 거쳐 자료를 분석하였다. 참여자의 일반적인 구술내용과 참여자의 언어에서 추출된 내용, 연구자의 언어로 종합하여 언어-예술은 표로 제시하였다.

참여자 1의 내용: 30대 중반의 남성으로 남한에 입국한지 1년 4개월 되었다. 북한에서 10년간 군대에 있었으며 재대한 직후 중국-미얀마 난민수용소를 거쳐 남한에 입국하였다. 전 기기술을 배우고 있으며 북한여성과 결혼해 살고 있다.

● 참여자 1 언어의 추출내용 - 연구자 언어의 종합

참여자 언어의 추출내용	연구자 언어의 종합
어린 시절 먹고 살기 힘들어 꽃제비로 살았지만 고향생각으로 슬픔을 달래며 지내고, 한국은 일한 대가가 명백해 의욕이 나며, 나도 사회의 한 부속품이라 생각됨.	생계난으로 꽃제비로 성장하여 탈북해 역할에 대한 댓가를 받으며 사니 자존감과 정체성이 형성됨
새터민 친구들과 외로움을 풀고, 결혼하고 아빠가 되니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강해지고, 남한사람과 잘 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대인관계의 중요성을 깨달음	이주자의 슬픔을 달래며 가정을 이루어 가장의 책임을 다하며, 남한사람과 조화로운 관계를 이루고자 함.
한국 갈 생각은 없었으나 중국서 복종되지 않으려고 미안마 산을 넘었으나 군인들에게 잡혀 난민수용소생활을 하였고, 기적적으로 한국에 들어와 기능대학에 진학하여 자격증이 나올 거니 희망이 생김	고난을 거쳐 한국에 온 것을 기적이라 여기며 능력에 맞는 전문기술을 배우고 있으나 삶의 희망을 갖게 됨

● Language-Arts 1

새터민의 내일을 향한 삶의 체험은 책임과 조화로운 관계를 이루며, 역할에 대해 정체성이 형성되고 능력에 맞는 미래의 삶에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다.

참여자 2의 내용: 40대 초반의 남성으로 북한에서 의사였

다. 한국에 입국한지 6년 되었으며, 현재 한의대를 다니고 있다. 중국-몽골 난민수용소를 거쳐 남한에 입국하였다.

참여자 2의 구술내용과 추출내용

참여자 2의 구술내용	참여자 언어의 추출내용
직접 체험해서 한국을 알아갔어. 다른 사람 말만 듣고는 몰라. 북한은 종교가 없는데 한국은 종교가 상당히 많아 실체를 알고 싶어서 다 다녀 보고 종교를 선택했어. 백 번 보는 것 보다 한 번 행하는 것 만 못하거든. 직접체험 하는 게 중요해요.	산다는 게 막막하나, 직접 체험을 통해 실체를 알고 노력하며, 의학공부를 하게 되어 풍요로워져 힘이 됨.
산다는 게 막막했어. 만일 내가 다시 의학공부하지 않았다면 나도 모르지...방황하는 기간이 더 길어졌을지...북에서는 의학 수업에 침놓는 기술만 가르치지 철학은 가르치지 않거든. 여기서는 하늘과 땅에 관한 우주원리부터 배우니까 다른 면에서도 생각이 풍요로워져.	
가족이 한 번에 모두 오면...의심사서 아이하나는 두고 왔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서 올 봄에 중국 두만강 지대까지 가서 친형제 만나 돈을 직접 건네줬어. 자식 데려올 수 없으니가 돈이라도 보내줘야지.	가족이 모두 올 수 없었기에 두고온 가족을 위해 돈을 보냄.
북에서 의사였어요. 성직자가 나 한테 의대 들어가 보라고 정보를 주시고 물질적으로도 도와주셔서 기회가 온 건데...그 전에는 술 마시고 방황 많이 했지...대학 들어가 남한사람하고 계속 접촉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사회에 대해 배우게...새터민이라니까 특히 교회서 연락이 많이 왔어. 자영업 하는 내 또래 남한 친구들 자주 만나. 말이 잘 통하거든.	남한 친구들을 만나게 되어 남한사회를 배우게 되고, 한국교회에서 성직자를 만나 의대진학 기회를 갖게 됨.
몽골국경에서 잡혀 난민수용소 생활을 했는데...하늘의 조화가 있었는지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장길수 가족이 유엔 난민사무소에 들어간 거야. 그때 나도 한국대사관에 연락이 된 거지. 그런 식으로 들어온 사람의 전례가 없었데...신의 뜻이 있었던 거지.	몽골국경에서 잡혀 난민수용소 생활 중에 장길수 가족의 유엔난민사무소 사건에 몰려 한국에 들어오게 되고, 지겹게 엮매어 산 북한생활에서 정신적으로 자유롭게 사는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고, 의학공부를 함으로 희망이 보임
북에서야 지겹게 엮매어 살았었지만, 여기서는 정신적으로 자유롭게 살 수 있니까 온 거지. 사람이 산 다는 게 잘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죽이지 않으면서 정신적으로 자유롭게 사는 게 더 중요한 거라 봐요. 의학공부하고는 있지만 영세민이잖아. 올해 지나면 졸업이니까 사는데 희망이 보여.	

● 참여자 2 언어의 추출내용 -연구자 언어의 종합

참여자 언어의 추출내용	연구자 언어의 종합
산다는 게 막막하나, 직접 체험을 통해 실체를 알리고 노력하며, 의학공부를 하게 되어 풍요로워져 힘이 됨.	적극적인 투신으로 최선을 다하니 의학공부를 할 기회가 주어져 생활에 힘이 있고 풍요로워짐
가족이 모두 올 수 없었기에 두고 온 가족을 위해 돈을 보냈으며, 남한 친구들을 만나게 되어 남한사회를 배우게 되고, 한국교회에서 성직자를 만나 의대진학 기회를 갖게 됨.	가족, 친구, 남한사회에 성공적인 적응과 성직자와의 만남을 통해 의대진학의 기회를 갖게 됨
몽골국경에서 잡혀 난민수용소 생활 중에 장길수 가족의 유엔난민사무소 사건에 몰려 한국에 들어오게 되고, 지겹게 엮매어 산 북한생활에서 정신적으로 자유롭게 사는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고, 의학공부를 함으로 희망이 보임	기적적인 섭리로 한국에 입국하게 되며, 인간의 자유와 희망을 체험함

● Language-Arts 2

새터민의 내일을 향한 삶의 체험은 적극적인 투신으로 최선을 다하고 은총의 기회가 주어지고, 기적적인 섭리로 인간의 자유와 희망을 체험하는 것이다.

참여자 3의 내용: 20대 중반의 여성으로 어머니와 함께 중국-태국을 거쳐 남한에 입국하였다. 입국한지 3년 되었으며 대학생이다.

참여자 3의 구술내용과 추출내용

참여자 구술내용	참여자 언어의 추출내용
엄마하고 둘이서 중국 가서 1년 6개월 정도 숨어 살았는데, 공안단속 때문에 자면서도 늘 불안한 거예요.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니까 신발을 뒷문에 놓고 잘 정도로 늘 준비하고 지냈어요. 그 때 정말 힘들었어요. 태국을 거쳐서 왔어요. 북한사람 수용해서 보내는 교회가 있었는데...4개월 정도 있었는데 한번 들어가면 밖에 일체 나갈 수가 없고 안에서만 지내야 해요. 답답하긴 해도 태국사람들 눈에 떠면 의심사서 신고 들어가거든요. 정말 고생 많이 한 거지요.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세월 가면 잊혀 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돼요. 갈수록 그리움이 더 커지는 거예요.	중국에서 숨어살 때 늘 불안하고 정말 힘들었으나, 교회의 도움으로 태국에서 4개월 수용생활 하다 한국에 오게 되니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갈 수록 커진다.
아무리 남한 사람처럼 하려고 해도 말씨에서 티가 팍 나잖아요. 사투리가 상당히 심했어요. 어떤 친구는 ‘그 사투리 좀 빨리 고쳐’ 부드럽게 말했는데 자존심이 팍 상하는 거예요. 얼른 고쳐지지 않아서 나도 힘든데...그래서 그 친구하고는 안 놀았어요. 생각해서 해 준 말인데... 그때는 무조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도 남한 친구 도움을 받아서 말을 하나씩 하나씩 고쳤어요. 하나씩 배워나간 거예요. 이웃에서 내가 여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시면서도 그냥 여기 사람하고 똑 같이 대해주셨어요. 그게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나를 특별히 대해주지 않은 거...	남한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사투리를 고치려고 노력하였고, 이웃사람들이 여기 사람하고 똑같이 대해준 것이 도움이 많이 되었다.
남자친구에게 내가 북한 출신이라고 밝혔더니 상당히 놀라더라고요. 전혀 몰랐다고...이젠 남한 사람들한테 내가 북한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편해졌어요. 내가 어차피 여기서 뻘을 묻어야 하는데 내가 살아가는데 편해 질 수 있는 방향으로 내가 이미 많이 변한 거예요. 어머니가 나중에 외할머니하고 제 사촌 동생을 데려오셨어요. 엄마는 여기 교육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사촌은 초등생인데 내가 돌봐줘요. 요즘에는 초등학교 과외를 하고 있어요. 영어학원에도 나가서 배우고 있고...앞으로는 취직준비도 해야겠지요. 여기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살 것 같아요. ‘아! 이제는 옛날의 내가 아니구나 하면서 웃어요. 정말 과거에서 많이 벗어났구나’ 생각하니 새롭고... 고생하면서 사람들 많이 만나다 보니까 사람 대하는 노하우가 생겨...이제는 잘 살아가는 것 같아 힘이 생겨요.	어머니가 나중에 가족과 친척들을 남한으로 데려 오시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며, 이미 많이 변화된 자신이 남한사람들과 살아가는데 편안해 짐을 느끼고, 학업과 취업준비를 하면서 남한사람처럼 적응된 자신의 모습이 힘이 됨.

● 참여자 3언어의 추출내용 - 연구자 언어의 종합

참여자 언어의 추출내용	연구자 언어의 종합
중국에서 숨어살 때 늘 불안하고 정말 힘들었으나, 교회의 도움으로 태국에서 4개월 수용생활 하다 한국에 오게 되니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갈 수록 커짐.	중국에서 은둔생활은 불안했으며, 한국에 오게 되니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침
남한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사투리를 고치려고 노력하였고, 이웃사람들이 여기 사람하고 똑같이 대해준 것이 도움이 많이 됨.	남한사람들이 인격적인 존중감으로 대해주어 남한사회에 성공적인 적응을 하게 됨.
어머니가 나중에 가족과 친척들을 남한으로 데려 오시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며, 이미 많이 변화된 자신이 남한사람들과 살아가는데 편안해 짐을 느끼고, 학업과 취업준비를 하면서 남한사람처럼 적응된 자신의 모습이 힘이 됨.	가족과 친척이 남한에 적응하는 것을 돕고, 남한사람처럼 편안하게 느껴지는 자신의 성숙된 변화를 체험함

● Language-Arts 3

새터민의 내일을 향한 삶의 체험은 그리운 가족과 함께 사는 사회에서 인격적인 존중을 받으며, 편안함을 느끼면서 자신의 성숙된 변화를 체험하는 것이다.

참여자 4의 내용: 20대 후반 여성으로 입국한지 4년 되었으며 대학생이다. 일가족이 함께 중국-태국-베트남 을 거쳐 입국하였다.

참여자 4의 구술내용과 추출내용

참여자 구술내용	참여자 언어의 추출내용
북한에서 배급이 끊겨서..내가 15살 때 부모님하고 오빠, 동생, 나 그렇게 중국 북한에서 배급이 끊겨 가족이 중국으로 가 빈집에 살	

참여자 4의 구술내용	참여자 언어의 추출내용
으로 갔어요. 부모님이 강릉 좁은 일하면서...어떤 빈집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중국서 5년 살았는데 여기 노숙자 생활이에요. 인간 최하 생활이었어요. 불법으로 있는 거니까 당연히 말할 권리가 없잖아요. 가족어 살게 되고...	먼저 노숙자생활로 불법으로 살았기에 말할 권리가 없이 인간최하의 생활을 함.
중국서 가족이 사니까 사람들 눈에 띄일까봐 밖에 잘 나가질 않았어요...결국 중국공안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복송됐어요. 부모님이 출감하신 후 거의 죽을 몸을 이끌고 내가 있는 꽃제비 수용소 근처 시장으로 자식들이 있나 찾으러 다니시다가 나를 만나...다시 두만강을 건너서 옛날에 가족들이 같이 살던 집으로 간 거예요. 한 번 신고 받고 복송되는 쓰디쓴 경험을 했으니까...식구들이 흩어져야 했어요. 아빠가...사라지셨는데 1년 만에 편지가 왔어요. 남한에 가신 거예요. 한 국서 살면 중국처럼 숨죽여 살지 않아도 되고 당당하게 자기 얘기 할 수...자유에 대한 얘기를 써 보내셨어요. 그래서 가족 모두 오게 된 거지요.	가족이 함께 살아갈 정신으로 살았으나, 신고로 인해 중국공안이 가족 모두를 복송시킴. 부모의 수용소 출감 후 다시 자식을 찾아(꽃제비 수용소) 두만강 건너 중국으로 감. 중국서 다시 복송될까봐 가족이 흩어져야 했음. 남한으로 먼저 들어간 아버지가 가족들에게 '자유로운 한국 얘기를 편지로 보냄.
복송됐다가 가족이 죽을 고비 넘기고, 다시 중국에 오니까 내 성격이 확 바뀌게 됐어요. 내 권리라는 건 없으니까, 누가 뭐라 해도 맞춰주고 싶고 짜증나도 표현하지 말자. 내가 변하지 않으면 어디서도 못 산다. 현실을 빨리 받아들이...자 존심은 내가 여기서 성공해서 찾아도 되고...엄마가 인간은 배워야 산다는 것들을 강조...나도 대학에 가야한다 생각했어요. 배워야 이 사회에서 할 일이 있을 거다. 북한서는 학교에서 배운 길로 공부는 충분해요. 여기는 자식들 미래를 위해서 부모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오히려 부모님을 이해해야...	현실에 적응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변해야 하는 자신을 깨닫게 되고, 인간은 배워야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기에 대학에 진학하기로 함.

● 참여자 4언어의 추출내용 - 연구자 언어의 종합

참여자 언어의 추출내용	연구자 언어의 종합
북한에서 배급이 끊겨 가족이 중국으로 가 빈집에 살면서 노숙자생활로 불법으로 살았기에 말할 권리가 없이 인간최하의 생활을 함.	북한에서 가족생계유지가 힘들어 중국에 왔으나 불법으로 체류하였기에 모든 권리를 박탈당한 채 최저의 가족생존을 유지함
가족이 함께 살아갈 정신으로 살았으나, 신고로 인해 중국공안이 가족 모두를 복송시켰고, 부모의 수용소 출감 후 다시 자식을 찾아(꽃제비 수용소) 두만강 건너 중국으로 갔으며, 중국서 다시 복송될까봐 가족이 함께 살 수 없었으며, 남한으로 먼저 들어간 아버지가 가족들에게 '자유로운 한국 얘기를 편지로 보냄.	중국공안에 의해 복송되어 가족이 해체되었고, 수용소 생활을 경험한 후 재탈북하여 중국에서 가족이 재회하였으나, 당당한 자유를 찾아 남한이주에 성공함.
현실에 적응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변해야 하는 자신을 깨닫게 되고, 인간은 배워야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기에 대학에 진학하기로 함.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자신을 확인하고 자아성취를 위해 사회에서 소중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 대학에 진학함.

● Language-Arts 4

새터민의 내일을 향한 삶의 체험은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고 최저 생존을 유지했으나, 가족 모두가 자유를 찾아 분투노력하여 남한 이주에 성공하게 되고, 자아성취를 위해 새로운

도전과 미래 사회 역할을 준비하는 것이다.

참여자 5의 내용: 20대 후반의 여성으로 남한에 입국한지 5년 된 대학생이다.

참여자 5의 구술내용과 추출내용

참여자 5의 구술내용	참여자 언어의 추출내용
내가 돈 벌어서 가족들 남한에 데려오려고 온 거니까 삶에 끈을 놓기 싫었어요. 북한에서 중국 갈 때도...다 같이 가고 싶었지만 국정 념을 때 줄 돈도 없었고. 내가 8살 때 부모님이 이혼해서 어린 나이부터 가장 역할을...누구한테 의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본적이 없어요. 원래 사로청(사회주의 노동청소년)애들은 장사 못하게 돼있어요. 걸리면 벌금 내거든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 아줌마처럼 머리에 수건 둘러매고 나갔어요. 북한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 단군조선 우리는 하나...언어도 하나 문화도 하나라고 배웠거든요. 물론 하나원 직원들을 보면서 북한사람들하고는 다르다는 걸 알기는 했지만 사회에 나와 보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가 아니더라...언어부터 시작해서 생각하는 방식까지도 완전히 달라서 그냥 외국이다 생각하고 시작하면 스스로 편안해요.	어린나이에 가장 역할을 해야 했기에 삶에 끈을 놓을 수가 없었고, 북한사람과 남한사람이 언어와 문화가 하나인줄 알았으나 외국처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깨달음.
알바 열심히 해서 돈 벌면 친구들한테 떡볶이라도 한번 풀고 하면서 친구를 사귀었어요. 내가 먼저 다가가고 먼저 말 붙이고 하다 보니...소심하던 성격이 확	남한 친구들과 사귀려고 먼저 다가가서 말 붙이며 노력하니 성격도 바뀌어가고, 여동생과 함께 살 수

참여자 1의 구술내용	참여자 2의 구술내용
바뀌었어요. 이제는 부끄러운 것도 없고..여동생이 하나원에...곧 같이 살게 된다 니까 벌써부터 마음이 든든해지고 몸이 나아지는 것 같아요. 전엔 몸이 무겁고 쉽게 피곤하고 머리로 아프고...잘 채하고 그랬는데...엄마가 돌봐주는 사람도 없 는데 잘 계실까...가서 돌봐드릴 수도 없고...인편으로 돈만 보내드려요.	있게 되니 마음이 든든해지고, 북한에 계신 어머니가 걱정되나, 인편으로 돈을 보내드리고 있음.
특레로 대학에 진학했어요. 해야 할 목표가 생기니까 잡생각이 확 줄어드는 거 예요. 내가 졸업하면 29세 정도 될 거라 생각되니까 낭비할 시간이 없었어요. 이제는 내가 북한 사람이란 걸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마음이 편해졌어요. 내가 남한 사람처럼 되려고 피나는 노력을 했어요. 이젠 걸로 봐서는 아무도 나를 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알더라도 큰 문제는 없어요..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지만 사는 건 이젠 내가 알아서 살아야 하니까. 그렇다고 돌아가 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요. 여기서 잘 사는 것이 엄마한테 효도하는 거다.그 렇게 생각하면서 지내요.	대학에 진학하여 목표가 생기니 잘 살아야겠다는 힘 이 생기고, 남한 사람처럼 되려고 피나는 노력을 했 기에 북한출신임을 알아도 마음이 편해졌고, 북한에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으며 남한에서 잘 사 는 것이 엄마에게 효도하는 것이라 생각함.

● 참여자 5 언어의 추출내용 - 연구자 언어의 종합

참여자 언어의 추출내용	연구자 언어의 종합
어린나이에 가장 역할을 해야 했기에 삶에 끈을 놓을 수가 없었고, 북한사람과 남한사람이 언어와 문화가 하나인줄 알았으나 외국처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깨달음.	불행한 어린 시절을 딛고 강한 생존력으로 살아왔으 며 남한과 북한의 문화적 차이를 깨닫게 됨.
남한 친구들과 사귀려고 먼저 다가가서 말 붙이며 노력하니 성격도 바뀌어가고, 여동생과 함께 살 수 있게 되니 마음이 든든해지고, 북한에 계신 어머니가 걱정 되나, 인편으로 돈을 보내드리고 있음.	남한친구들과의 대인관계를 위해 솔선노력하고, 가족 과 함께 살 수 있게 되니 삶의 생기를 되찾아 감.
대학에 진학하여 목표가 생기니 잘 살아야겠다는 힘이 생기고, 남한 사람처럼 되려고 피나는 노력을 했기에 북한출신임을 알아도 마음이 편해졌고, 북한에 돌 아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으며 남한에서 잘 사는 것이 엄마에게 효도하는 것 이라 생각함.	개인의 성장을 통하여 자존감이 살아나고 평온함이 생기니 삶의 방향이 확고해짐.

● Language-Arts 5

새터민의 내일을 향한 삶의 체험은 불행을 딛고 강한 생존
력으로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원만한 대인관계와 개인 성
장을 통하여 삶의 방향을 확고히 해 나가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 5인의 언어-예술(Language-Art)는 <Table 1>로
정리되었다.

본 연구 결과에서 확인된 구조적 종합, 개념적 해석을 통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새터민의 내일을 향한 삶의 체험이
란 다섯 구조(Structure)로 나타났다. 구조는 ‘책임감을 지니며
남한사람과의 조화로움으로 미래의 삶에 대한 희망을 가지며,
통합된 정체성을 형성하며; 적극적인 투신으로 기회를 발견하
고, 인간의 자유와 희망을 느끼는 것이며; 인격적인 존중을

받는다’고 느끼며 새로운 사회에 자신을 동화시키며; 과거 누
리지 못했던 자유를 되찾으며,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위해 도
전하고 스스로를 준비해 나가는 것이며; 생존을 향해 강화되
었던 강인성으로 문화적 상이성을 극복해 나가면서 개인성장
을 향한 삶의 과정을 결정하는 것’이다. 새터민의 내일을 향
한 삶의 구조적 전환(structural transposition)은 문화적 상이성
의 극복과 개인성장을 향한 삶의 과정 결정,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위한 도전과 자신을 준비시키기, 그리고 인간의 자유
와 희망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터민의 내일을 향한 체
험의 개념적 통합(conceptual integration)은 이들의 가능성-제
한성의 가치화를 변형시켜 나가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예술적
표현(artistic expression)은 본 연구 주제를 시나 소설, 그림 등
의 예술 형태를 통하여 설명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는다. 따라

<Table 1> Language-Arts

참여자 1	내일을 향한 삶의 체험은 책임과 조화로운 관계를 이루며, 역할에 대해 정체성이 형성되고 능력에 맞는 미래의 삶에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다.
참여자 2	내일을 향한 삶의 체험은 적극적인 투신으로 최선을 다하고 은총의 기회가 주어지고, 기적적인 섭리로 인간의 자유 와 희망을 체험하는 것이다.
참여자 3	내일을 향한 삶의 체험은 그리운 가족과 함께 사는 사회에서 인격적인 존중을 받으며, 편안함을 느끼면서 자신의 성 숙된 변화를 체험하는 것이다.
참여자 4	내일을 향한 삶의 체험은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고 최저 생존을 유지했으나, 가족 모두가 자유를 찾아 분투노력하여 남한 이주에 성공하게 되고, 자아성취를 위해 새로운 도전과 미래 사회 역할을 준비하는 것이다.
참여자 5	내일을 향한 삶의 체험은 불행을 딛고 강한 생존력으로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원만한 대인관계와 개인 성장을 통 하여 삶의 방향을 확고히 해 나가는 것이다.

<Table 2> The finding of lived experience of considering tomorrow among North Korean refugees

Structure
Structure 1. The lived experience of considering tomorrow is hope for future life with taking responsibility and harmony with South Korean, as forming integrated identification.
Structure 2. The lived experience of considering tomorrow is finding chance with positive engagement, as feeling human freedom and hope .
Structure 3. The lived experience of considering tomorrow is feeling respected, as assimilating self to new world.
Structure 4. The lived experience of considering tomorrow is getting freedom back, as making a new challenge and preparing self for new social role.
Structure 5. The lived experience of considering tomorrow is overcoming cultural difference with fortified hardiness for survival, as making a decision for life course with individual growth.
Structural transposition
The lived experience of considering tomorrow is overcoming cultural difference, making a decision for life course with individual growth, making a new challenge and preparing self for new social role, feeling human freedom and hope.
Conceptual integration
The lived experience of considering tomorrow is transforming the valuing enabling-limiting.
Artistic expression
The artistic expression incarnating the researcher's transfiguring moments with the research is the following poem: Life is hope for considering tomorrow if hope disappears, the reason for living would disappear soon. <Anonymous North Korean refugee, 2003>

서 본 연구에서는 익명의 새터민이 출간한 시 ‘삶의 이유’ 중에서 ‘삶이란 결국/내일에 대한 희망입니다./그 희망마저 사라진다면/살아야 할 이유도/곧 없어질 테니까요.’ 라는 한 구절을 발췌하여 활용하였다.

본 연구 결과의 Core Concepts(핵심개념), Structural Transposition(구조적 전환), 그리고 Conceptual Integration(개념적 통합)을 아래 <Table 3>으로 정리하였다.

논 의

새로운 사회에 이주한 새터민들의 내일을 향한 삶의 체험은 이들의 사회적 통합을 향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연구 참

여자들이 제시했던 생존에 대한 강인성, 사회적 정체감 형성, 미래에 대한 희망, 현실에 대한 적극적 투신, 남한사람들과의 원만한 대인 관계 형성에 대한 욕구, 개인 성장을 향한 삶의 방향 설정 등 과 같은 요인들은 내일을 향한 삶에 중요한 부분임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 새터민들은 사회연계체제의 빈약, 경제문제, 남한 사회에 대한 지식과 이해부족, 이등 시민이라는 열등의식, 죄책감과 외로움 등의 심리적 문제, 남한사회가 갖고 있는 이주자에 대한 사회적 배제와 차별,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자신이 속한 집단이나 국가가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집단주의적 의존심, 과거 북한 교육의 영향 등으로 인해 새로운 삶의 원칙들을 발견해 나가기 어려울 뿐 만

<Table 3> Progressive abstraction of the core concepts

	핵심개념 (Core Concept)	구조적 전환 (Structural transposition)	개념적 통합 (Conceptual integration)
참여자 1	내일을 향한 삶의 체험은 책임과 조화로운 관계를 이루며, 역할에 대해 정체성이 형성되고 능력에 맞는 미래의 삶에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다.	책임과 조화로 정체성 형성과 미래의 삶에 희망을 가짐	가치화 가능-제한 독창성
참여자 2	내일을 향한 삶의 체험은 적극적인 투신으로 최선을 다하고 은총의 기회가 주어지고, 기적적인 섭리로 인간의 자유와 희망을 체험하는 것이다.	적극적 투신으로 기회를 찾고, 인간의 자유와 희망을 체험	가치화 가능-제한 변형성
참여자 3	내일을 향한 삶의 체험은 그리운 가족과 함께 사는 사회에서 인격적인 존중을 받으며, 편안함을 느끼면서 자신의 성숙된 변화를 체험하는 것이다.	존중받으며 자신의 성숙된 변화를 체험	상상화 연결-분리 변형성
참여자 4	내일을 향한 삶의 체험은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고 최저 생존을 유지했으나, 가족 모두가 자유를 찾아 분투노력하여 남한 이주에 성공하게 되고, 자아성취를 위해 새로운 도전과 미래 사회 역할을 준비하는 것이다.	자유를 찾게 되고, 새로운 도전과 미래 사회역할 준비	가치화 가능-제한 변형성
참여자 5	내일을 향한 삶의 체험은 불행을 딛고 강한 생존력으로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원만한 대인관계와 개인 성장을 통하여 삶의 방향을 확고히 해 나가는 것이다.	강한 생존력으로 문화차이 극복과 개인 성장을 통한 삶의 방향 설정	가치화 노출-은폐 강화성

아니라(Jeon, 2007), 한국사회의 또 다른 빈민 계층으로 인식되어 변함없는 사회적 짐으로 간주되었다(Koreapeace Forum, 2007). 그러나 내일을 향한 삶의 체험은 적극적인 투신으로 최선을 다하고 은총의 기회가 주어지고, 기적적인 섭리로 인간의 자유와 희망을 체험하는 것이다. 그리고 새터민의 남한 생활 적응에 있어서 가족 연계와 통합 역시 중요한 내적 치유 요인으로 나타났다. 물론 가족원과의 마찰과 갈등이 정착 과정에 부정적인 어려움을 주기도(Kim, 2007) 하지만 본 연구인 내일을 향한 새터민의 삶의 체험은 그리운 가족과 함께 사는 사회에서 인격적인 존중을 받으며, 편안함을 느끼면서 자신의 성숙된 변화를 체험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새터민 관련 질적 연구들(Kim, 2007; Lee, 2003; Cho & Jeon, 2004)에서는 양적 연구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측면들, 즉 새터민들이 이문화의 차이를 극복하고 자신의 자리를 찾기 위해 크게 교육 및 직업 활동, 영적 생활에 가중치를 두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과거 난민 연구에서 난민들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방법과도 일치하는데 그것 역시 일과 영적 활동이었다(MSF & IBS, 2006). 본 연구 참여자들 역시 내일을 위해 현재 학교 및 직업 교육을 받는 과정이었으며 종교생활을 하고 있었다.

새터민은 북한에서 지정해 주었던 직업을 활용해서는 남한 사회에서 활동하기 힘든데다가 스스로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적 능력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도 교육은 이들의 정신문화적 변화를 확대시키는데 중요한 요인들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종교 활동은 새터민들의 사회적 지지망 연계와 더불어 불안감, 두려움, 및 우울과 같은 심리적 문제를 완화시키는 완충제 역할을 할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결과는 새터민이 남한사회에서 재교육을 받을수록 우울감이 낮아지며(Kim, 2005), 남한 문화지향성을 중심으로 적절히 대처할수록 역시 우울감이 낮아진다는 결과(Chae & Lee, 2004)와도 연결된다. 또한 내일을 향한 새터민이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고 최저 생존을 유지했으나, 가족 모두가 자유를 찾아 분투 노력하여 남한 이주에 성공하게 되고, 자아성취를 위해 새로운 도전과 미래 사회 역할을 준비하는 삶의 체험이기도 하다.

새터민들의 내일을 향한 삶에서 비추어진 것처럼 이들의 개인성장은 교육영역, 생활영역, 심리영역, 의료영역 등 매우 다양한 포괄적 지원을 요구한다. 따라서 이러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지역단위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Kim, Kim, An, & Yu, 2006). 이는 내일을 향한 새터민의 삶의 체험은 불행을 딛고 강한 생존력으로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원만한 대인관계와 개인 성장을 통하여 삶의 방향을 확고히 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반적으로 새터민의 정신건강 상태는 남한의 일반인들과 거의 차이가 없으며, 과거 국외 난민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서 난민들의 정신건강이 크게 나뉘었던 것과는 매우 대조적(Jeon, 2007)이라는 연구결과를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한국사회에서 새터민은 더 이상 동질적인 이주자들이 아니라, 강점을 지닌 이질적인 개인이라는 관점에서 남한사회 역시 이들에 대한 사회적 배제와 편견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음이 본 연구를 통해 시사하는 바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새터민들이 탈북과정에서의 고통과 이질적인 남한사회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도움이 되었던 가치와 중요한 공동창조력을 탐색하였고, 새터민의 체험을 이해하고 적응을 도우며, 이들의 잠재능력에 초점을 두어 보다 성장지향적인 측면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남한이라는 새로운 이주사회의 사회문화적 맥락과 맞물려 경험되어진 새터민의 내일을 향한 삶의 체험 연구를 통해 새터민들의 건강한 사회적 통합 과정에 기여할 수 있는 간호중재 이론을 개발하고자 Parse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새터민의 내일을 향해 사는 체험의 구조를 발견하고자 하였다. Parse 연구방법에 따라서 나와 너의 관계형성을 통해 2006년 2월부터 11월까지 연구 참여자 5명에게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질문은 ‘내일을 향해 사는 체험의 구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이며, 새터민의 내일을 향한 삶의 체험은 다음의 다섯 구조로 나타났다.

- 구조 1. 책임감을 지니며 남한사람과의 조화로움으로 미래의 삶에 대한 희망을 가지며, 통합된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다.
- 구조 2. 적극적인 투신으로 기회를 발견하고, 인간의 자유와 희망을 느끼는 것이다.
- 구조 3. 인격적인 존중을 받는다고 느끼며 새로운 사회에 자신을 동화시키는 것이다.
- 구조 4. 과거 누리지 못했던 자유를 되찾으며,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위해 도전하고 스스로를 준비해 나가는 것이다.
- 구조 5. 생존을 향해 강화되었던 강인성으로 문화적 상이성을 극복해 나가면서 개인성장을 향한 삶의 과정을 결정하는 것이다.

새터민의 내일을 향한 삶의 체험구조는 문화적 상이성의 극복과 개인성장을 향한 삶의 과정 결정,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위한 도전과 자신을 준비시키기, 그리고 인간의 자유와 희망을 느끼는 것으로 구조적 전환이 나타났다. 개념적 통합은 새터민의 내일을 향한 삶의 체험이란 가능성-제한성의 가치화를 변형시켜 나가는 성장과 창조의 의미를 지닌 변형성의 개념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 사항을 제언하

고자 한다.

- 새터민들이 밀집되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다학제 연계모델을 구축하여 각 학제의 전문 역할 및 효과적인 개입을 제언한다.
- 건강 전문가들 간의 다학제 접근을 통한 역할 갈등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제언한다.
- 건강 전문가로서 간호학계의 관심과 심층적인 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 Anonymous North Korean refugee (2003). *Poem for naked confession*. Seoul: Living Books.
- Anthony, J. Welch (2007). The phenomenon of taking life day-by-day: Using Parse's research method. *J Nursing Science Quarterly*, 20(3), 265-272.
- Carper, B. (1978). Fundamental patterns of knowing in Nursing. *J Advances in Nursing Science*, 1(1), 13-23.
- Cho, Y., A., & Jeon, W. T. (2004). A qualitative study of North Korea students' adaptation to South Korean college life. *J Korean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6(1), 167-186.
- Cho, Y. A., & Yu, S. E. (2007). A study on the role and intervention strategies of mental health professionals for North Korean defectors. *Unification Study*, 15(2), 54-77.
- Jeon, W. T., Yoon, D. Y., & Um, J. S. (2003). Survey for adjustment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the South. *Unification Study*, 7(1), 155-208.
- Jeon, W. T. (2007). *Unification of people unification of nation*. Seoul: Yonsei University Press.
- Jung, B. H., Jeon, W. T., & Jung, J. K. (2006). *Welcome to Korea: North Korean's life in the South*. Seoul: Hanyang University Press.
- Kim, E. H. (2003). *Hope experience of the unmarried teen age Mother living in group hom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onnam University, Gwangju.
- Kim, M. R. (2005). The effect of the adjustment and the social support on the depressive symptoms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 *J Korean Social Welfare*, 57(1), 193.
- Kim, M. S., Kim, A. G., Lee, O. J., & Ko, H. J. (1991). Han thought and caring. *J Korean Acad Nurs*, 21(3), 295-306.
- Kim, H. K. (2007).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experience of trauma recovery among the North Korean refuge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Kim, S. S. (1979). Comprehensive nursing. *J Korean Acad Nurs*, 18(2), 34.
- Kim, Y. H., Kim, C. O., An, N. Y., & Yu, C. E. (2006). *Mental health improvement program guide book for North Korean defectors*. Seoul: Beautiful life.
- Koreapeace Forum (2007). *Are one thousand North Korean defectors our burden or power?. Vol. 1*, Seoul Press Center.
- Ko, M. S. (1995). *Lived experience of the loss due to abortion for married women'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Ko, M. S., Lee, O. J., & Lee, J. S. (1998). *Theory of human becoming-apply of research and practice*. Seoul: Hyun Moon Sa.
- Lee, H. K. (2003). *A study on the university life experience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Lee, O. J. (1995). *The phenomenological study of the lived experience with terminal cance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Lee, J. S. (1996). *Recovery experience of the alcohol addictone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 Lee, S. Y. (2002). *Lived experience of the schizophrenia pati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eimyung University, Daegu.
- Médicins Sans Frontières & The Institute of Behavioral Science in Medical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Co-symposium (2006). *Healing: Psychological trauma and loss of North Korean refugees in South Korea*. Seoul: Yonsei University Press.
- Wie, O. Y. (2004). *Lived experience of the hemodialysis pati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yang University, Daejeon.
- Parse, R. R. (1991). *Human becoming: Parse's theory of nursing*. Master Handout. 1-13.
- Parse, R. R. (1998). *The human becoming school of thought: A perspective for nurses and other health professionals*. Thousand Oaks, CA: Sage.
- Parse, R. R. (2001). *Qualitative inquiry: The path of sciencing*. Sudbury, MA: Jones & Bartlett.
- Parse, R. R. (2005). The human becoming modes of inquiry: Emerging sciencing. *J Nursing Science Quarterly*, 18, 297-300.
- Parse, R. R. (2006). Feeling respected: A Parse method study. *J Nursing Science Quarterly*, 19(1), 51-56.
- Rhoe, C. H. (1992). *Separation experience of the adolescents relate in psychiatric mental ward*.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Youn, J. A. (2000). *Lived experience of the homeles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anyang University, Seoul.